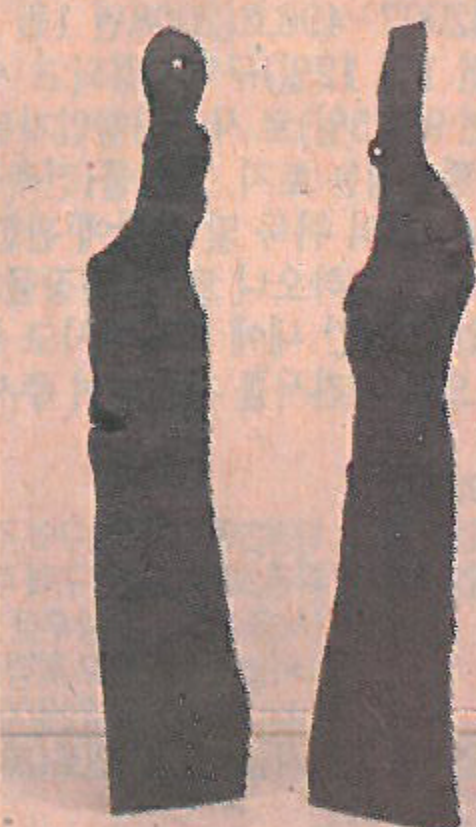


英 '나무조각가' 내시, 서울서 개인전

■ 시골 마을 어귀의 나무 장승처럼 길쭉한 두 기둥이 서 있는 전시장. 벽면과 바닥 위로 온통 나무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어 흡사 푸른 잎을 떨군 나무들이 밀집한 겨울 산 같다.

영국 출신 조각가 데이비드 내시(69)의 작품은 나무 소재이거나, 브론즈 작품조차 외양은



‘왕과 여왕1’ 국제갤러리 제공
영락없는 나무다. ‘나무

조각가’ 내시의 개인전이 오는 1월 25일까지 서울 국제 갤러리 2관에서 열린다. 그는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고사한 삼나무, 주목 등 각양각색 나무들을 톱으로 자르고 깎고 다듬어 나무의 형태를 되살린다. ‘자연사’한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는 “인위적이 아니라, 나무의 균열과 변형까지 내 앞의 재료가 이끄는 대로 형태를 만든다”고 밝혔다.

“나무의 수명주기가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한다.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 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는 자신의 형태를 통해 시간 이야기를 보여준다.”

죽은 나무에 불어넣은 생명 “결따라 색따라 형태 되살려”

영국 북웨일스 산간지역에서 작가는 엘니뇨 태풍으로 쓰러지거나 산사태에 쓸려 내려온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홋카이도 등 세계 각지서 수집한 각양각색 나무를 소재로 작업한다. 썩거나 뒤틀리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 무게의 40%에 이르는 수분을 완전 건조시키려면 그 준비기간만 3~7년여. 나무도 사람처럼 개성이 제각각이라 성질 강한 너도밤나무는 가로로 자르고, 반대로 무른 삼나무는 세로로 톱질하는 등, 나무마다 성격대로 다루는 것이 재료와 소통하는 작업의 노하우다.

나무 밀도가 높아 잘 쪼개지지 않는 호랑가시나무 등이 내시의 작업을 통해 특유의 색과 결을 드러낸다. 굴참나무 밑동을 이용한 작품의 경우, 나이테를 따라 갈라지는 균열을 바깥으로 확장시키며 나무 본연의 형태를 되살려낸다.

브론즈로 나무의 형상을 떠낸 ‘왕과 여왕1’은 우리 전래의 나무 장승과 닮았다. 상단에 사람의 눈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등, 단순화한 인체를 연상케 한다. 납작한 나무판 작품에선 나무결 속으로 여백 많은 한국 전통 산수화를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또 “오랜 시간 나무를 다루다 보니 나이테와 변화하는 색에서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게 된다”며 나무 색의 변화를 담아낸 종이 작품도 선보인다. 나무껍질을 벗기면 드러나는 사람의 피부 같은 나무 속살, 붉은색에서 황갈색으로 다시 회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종이 드로잉 및 3개 액자로 구성된 삼면화로 표현했다.